

사설

학생 위원 빠진 유학생 TF, 아쉽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글로벌 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한 위원회’(유학생 TF)가 지난달 출범했다. 학사 체계 연구와 교양과정 및 전공선택 시스템 마련 연구 등 유학생 교육과정과 관련한 대대적인 개편을 이루기 위함이다. 하지만 TF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대상이 되는 유학생이 정작 구성원에서 제외됐다. 또한 TF 결과 보고서 제출일이 다음달 31일로, 논의 기간이 짧게 배정됐다. TF에서 결정한 사안은 우리학교 중장기 유학생 정책으로 자리할 수도 있어 우려스럽다.

요즘 대학가에는 유학생이 학업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 ‘한국어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우리학교만큼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선발하고 있는 연세대, 성균관대, 고려대는 한국어 능력 강화를 우선순위에 두고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공감대를 토대로 외국인 전용 학부나 대학을 신설해 운영하는 등, 교육 과정에서 대대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이번에 출범한 우리학교 유학생 TF 또한 흐름에 발맞춰 외국인 학생 입학 및 졸업요건, 외국인 전용 학부 신설, 전반적인 학사 체계 점검 등의 의제를 논의하게 된다.

15년이 넘는 유학생 정책을 개선할 TF 취지와 필요성에 이견은 없다. 다만 중요한 의사결정이 오가는 자리에 정작 논의 당사자인 유학생이 제외된 것은 의아하다. 총유학생회처럼 대표성을 지닌 유학생 집단이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신문의 확인 결과, 총유학생회는 유학생 TF에 관해서 들은 소식도, 위원 제외도 없었다고 말했다.

여러 관점과 함께 논의해야 하지만 학교의 시선으로만 TF가 전

개될 가능성이 높다.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를 배제한 채 논의하는 TF 구상이 정당성과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까.

대외부총장실은 총유학생회와 같은 학생 위원이 빠진 이유로 “유학생 의견은 매년 진행되는 설문조사로 충분히 청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초안이 나오면 유학생에게도 일부 공유하는 등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애기하고 있다. 약 2개월의 짧은 시간 동안 유의미한 결과를 내야 해 슬림한 위원회 조직과 실행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더욱 심도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TF에 전문가는 물론 이해 당사자를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TF 결과는 우리학교 유학생 정책의 기초를 뒤바꿀 수도 있을 뿐더러 결국 유학생이 그 교육을 받기 때문이다.

유학생 수가 전체 학부생의 10%를 넘기고 있다. 유학생 인원이 의미있는 숫자가 되지 않았던 시절처럼 학교에서 발표하는 정책에 tap다운 방식으로 수렴하는 수동적인 존재로만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 유학생 장이철(포스트모던음악학 2022) 씨는 진정으로 유학생의 상황을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사람은 유학생 본인들뿐이라고 말한다. 또한 “꼭 총유학생회가 아니더라도 유학생으로 구성된 학생 위원 또한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유학생이 정작 유학생 교육과정 개편을 논하는 회의체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아쉽다. 더욱 건설적인 논의를 위해 학교는 조속히 유학생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길 바란다.

세시봉

뉴진스 땡큐!

이동건 기자
ehdri3589@khu.ac.kr



‘한 사회의 상징 체계’라는 문화의 정의는 추상적이고 난해하다. “아와타 시노 코이와~ 미나미노 카제니 닛테 하시루와~”라는 멜로디를 하루에도 몇 번씩 흥얼거리기 전까진 말이다.

지난달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한국 대표 아이돌 걸그룹 ‘뉴진스’ 팬미팅에 양일간 9만 1,000명의 관객이 운집했다. 2시간 30분 무대에서 뉴진스 멤버 팜하니의 ‘푸른 산호초’가 목격한 메시지를 던졌다. 푸른 산호초는 일본 세기의 아이돌 마츠다 세이코의 대표곡이자 80년대 일본의 경제, 문화적 황금기를 상징하는 노래다.

그날 도쿄돔은 난리가 났다. 전주부터 벽찬 환호가 터졌고, 노래에 맞춰 오! 오! 하는 마츠다 세이코의 전성기 시절 응원법까지 튀어나왔다. 마린록, 단발머리, 깜찍한 안무, 청량한 목소리까지 세이코의 재림이었다. 무대의 떨림은 SNS로도 이어졌다. 일본 젊은이들은 경험한 적 없는 풍요로운 과거로 시간여행을 했으며 들쭉였고 청년 시절로 회귀한 중장년 아재들은 ‘뉴진스 오지상(아저씨)’ 팬덤을 결성했다. “단 3분으로 40년 전 일본을 소환했다”는 댓글만큼 기가 막힌 평은 또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하니의 푸른 산호초는 한국에서도 폭발적 인기를 끌었다. 일명 ‘팜호초’(팜하니+산호초) 영상이 수백 회 때도 허투루 넘기지 못한다고 한다. 급기야 7일 만에 450만 조회수를 넘었다. 상쾌한 멜로디와 맑은 표정은 몽글한 마음을 넘어 찬란함을 느끼게 한다. 팜호초 앞에서 험난한 미래에 대한 걱정은 장밋빛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뒤바뀐다. 그렇게 우리는 수백 번, 40년 전 일본을 매개체로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이상한 감정 아닐 수 없다. 짐작되는 여러 이유 중 하나로, 우리 세대는 40년 전 일본에 하등 관심이 없다. 부정적 감정이라도 없으면 다행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일본도 그럴 테다. 그런데 뉴진스 앞에서는 어떠한 대결 구도도 없이, 서로를 마주하며 비슷한 감정과 정서를 공유함을 직감한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상징과 문화의 힘이 아닐까.

하어, 양국에 담긴 뉴진스 열풍으로 난해한 문화의 정의를 이해했다는 말은 과장이 아니다. 뉴진스, 정말로 땡큐!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열악한 무용학부 백스테이지 환경

눈비 맞으며 공연 준비

하시연 기자
hse0622@khu.ac.kr



‘백스테이지’는 무대 뒤편에서 공연을 준비하고 대기하는 공간이다. 하지만 무용대 다목적홀 백스테이지는 아외다. 백스테이지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운 상황이다.

성인 두 명이 서기도 벅찰 정도로 좁았다. 미끄럼 방지도 없는 돌계단과 비를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좁은 지붕은 황당했다. 비나 눈이 내리는 상황은 상상하기 싫었다. 공연 직전에 옷맵시를 가다듬고 대기하는 백스테이지 공간에서 학생은 의상이 오염되지 않을지, 감기 걸리지 않을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아이러니하다.

환경이 부실한 데서 오는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간다. 무용학부 공연은 시험, 졸업 작품 등 자신의 미래를 위해 온 힘을 쏟아야 하는 무대다. 열악한 백스테이지가 과연 모든 역량을 끌어낼

수 있는 환경인지 의구심이 든다. 소통간담회에서도 무용학부는 계속해서 개선을 요구했지만, 학교의 대응은 아쉽다. 지난 6월에 열린 소통간담회에서 대학본부는 무용대 백스테이지의 열악한 환경을 예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해결은 요원하다. 소통간담회가 한 달이 지난 현재도 “해결 방안을 수립 중이다” 등의 형식적인 말만 되풀이했다. 벽을 세우는 것이 불법이고, 인·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폭이 넓은 반대편 외부 통로를 사용한다는 방안은 결국 제자리걸음이 될 것이다. 우리학교 무용학부는 1965년부터 지금까지 깊은 역사를 자랑한다. 그동안 무용학부 교수와 학생은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식,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등 세계적인 축제에서 공연하며 우리학교, 우리나라를 빛내왔다. 설립 60주년이 다 돼가는 무용학부의 위상에 비추어볼 때, 학내 공연장 백스테이지 시설이 아외라는 점은 부끄럽다. 학교의 위상과 더불어 무용학부의 발전을 위해 빠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만평 외부에 위치한 백스테이지에서 추위에 떠는 학생들

교시 교훈 문화세계의 창조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김진상** | 편집인 **남윤재** | 편집장 **이지수**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 인쇄 아이피디